

《핵참화 불러오는 연합군사훈련 반대한다!》, 《미군 철수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최근 남조선에서는 반전, 반미, 반윤석열 투쟁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8월 1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비상시국회의, 《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8.15법국민대회》를 개최

한다고 한다. 《8.15법국민대회》 추진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역적패당이 미일과의 군사협력강화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규탄하면서 《주권과 평화를 위해 투쟁》하자고 호소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미일남조선의 군사협력체제의 강화와 고강도연합군사훈련으로 조선반도는 세계의 화안고가 되었다고 하면서 민족의 자주권과 평화를 위해 반윤석열, 반미투쟁에 각계층이 일떠서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한편 지난 7일 부산에서는 《민주로총 24기 중앙통일선봉대》와 《8.15대학자주통일선봉대》, 《대학생진보연합 6기 통일대행진단》이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공동발대식을 진행하였다. 발대식에서 통일선봉대 총

대장은 《미국을 믿고 설치된 반민족적 윤석열(정권)에 균열을 내는 퇴진선봉대가 되자!》고 호소하였으며 《8.15대학자주통일선봉대》 공동대표는 《대학생이 앞장서서 기세를 실천으로 증명하자!》고 발언하였다. 발대식이 끝난 후 《전국

민중행동 통일선봉대》는 《한미일전쟁연습 막아내자!》, 《친미친일 굴욕외교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자!》의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하였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격문에서 사대와 망령으로 두가 펼쳐나서자고 호소하

리, 대구, 평택을 비롯한 각지의 미군기지들 앞에서 《핵참화를 불러오는 연합군사훈련 반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격문을 발표하였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격문에서 사대와 망령으로 두가 펼쳐나서자고 호소하

리 휘둘리고있고 민생은 파탄되었으며 《연합군사훈련 반대한다! 전쟁광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함성이 메아리치고 밝히면서 윤석열퇴진과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반대, 미군철수투쟁에 모두가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본기자



얼마전 남조선군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라는자가 《북의 다양한(도발) 상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만일(적의 도발)한다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현장에 일격에 응징하여 승리를 쫓아야 한다.》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공화국의 초강력, 초강세에 전례없는 대결의 단말마적인 피성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도대체 세계최강의 핵보유국을 향해 불질을 하겠다는것이 대결에 환장한 미친자의 발광이 아니고 과연 무엇인가. 더욱이 미국의 총알받이,

대포발에 불과한자들이 절대적임을 비추는 상대를 어찌 보겠냐고 하는것이야말로 가마속의 삶은 소대거리도 양천대소할 해괴한 추태이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는 법이다.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반공화군사적대결책동에 의해 최악의 상태에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라는자가 채친 호전적망발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광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데 대하여 쉽게 알수 있게 한다. 오만에 객기가 더해지면 자멸이 따른다. 상대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고 오기를 부리는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불을 뿜는 총구앞에 나서는 가련한 자들이다. 하늘이 만든 화는 피할수 있어도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수 없다. 본기자 김 광 력

일제식민지통치를 끝장낸 8.15는 민족재생과 자주독립의 길을 열어준 소중한 날이다. 그러나 8.15해방이후 남조선에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명예가 미국식민지통치의 사슬로 바뀌었고 친일세력은 친미로 둔갑하여 오늘날까지 활개치며 여전히 매국배족을 일삼고 있다. 윤석열역도도 일본분부성(당시) 장학금을 받아 히토쓰바시대학에서 류학하면서 일본을 절대적으로 숭배해온 친일파의 후손이다. 이런자이기에 보수패당의 《대통령》선거후보로 나섰을 때 《일본의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오염수방류를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 《한

일관계악화는 일본사회의 우경화때문이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대일정책때문이다.》, 《국인을 친일, 반일로 갈라 과거에 묶어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한미일군사동맹도 가능하며 유사시 일본군이 조선반도에 들어올수도 있다.》는 친일매국배족들을 로골적으로 내뱉었던 것이다. 윤석열역도의 친일망발이 얼마나 도수를 넘었으면 일본의 《니혼게이지》신문까지도 윤석열역도를 《남조선의 뿌리깊은 반일 대 친일의 이분법적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도전해나선 보수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추켜세웠겠는가. 갖은 음모적방법으로 간신히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윤석열역도는 《대통령》선거때 뇌까린 친일매국배족들을 그대로 실천해나갔다. 《대통령》버거지를 머리에 올려놓기 바쁘게 역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친일파들로 구성된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라는것을 씌나라에 보내어 관계개선을 구걸하는 청탁놀음을 벌렸었다. 역도는 《지지률이 1%로 떨어진다》고 해도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겠다.》고 떠벌이며 일제강제정용피해자들에게 씌나라것들을 대신하여 저들이 보상금을 주겠다고 설쳐댔으며 남조선해군을 씌나라에 보내어 전범기인 《옥일기》에 경례하게 하는 비굴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올해 일본행각에서는 남조선과 일본은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꿰쳐며 일제의 피비린 과거죄악을 백지화하는 친화적정절을 하였으며 일본수상의 남조선행담에는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해결력을 한발자국도 내디딜수 없다는 인식에

서 벗어나야 한다.》고 떠벌이며 씌나라것들과 입을 맞추며 돌아갔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민족의 친년속적인 씌나라것들을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 침략자가 아닌 《협력동반자》라고 개어올리고 일제에게 아무굴종한 친일역적들을 《애국자》로 내세우는 쓸개빠진짓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 있다. 역도의 광적인 친일굴종행위로 하여 씌나라것들은 《옥일기》를 친연스레 날리며 남조선에 재침의 발을 들여놓고있는가 하면 우리 민

족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우기며 로골적으로 독도강탈책동에 매달리고있는것이다. 남조선 각계층이 윤석열역도를 가리켜 《제2의 리한용》, 《현대판매국노》, 《윤재앙》, 《리명박과 전두환, 로태우를 합친것보다 더 나쁜놈》, 《일본의 간첩》이라고 지탄하고있는것은 용당하다. 친미사대매국에 환장이 되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짓밟아 못해 친년속적 씌나라것들에게까지 아무굴종하며 매국배족을 일삼는 윤석열역도야말로 민족의 피와 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수 없는 친화적, 가장 추악한 반역자이다. 본기자 김 정 혁

안팎으로 일색인 친일매국노

썩은 정치가 빚어낸 죽음의 사회

각종 사고와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남조선에서 최근 덮어놓고 사람을 죽이는 범죄도 류행처럼 잇달고 있다. 지난 8월 3일 저녁 경기도 성남시의 어느 한 백화점 앞 인도도로에 난데없이 승용차가 뛰어들었다. 5명을 끌어트린 그 차에서 내린 청년이 백화점으로 들어

가 무차별적으로 흥기를 휘둘러 14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고 한다. 극도의 인간중오상이 만연되고 살인과 폭행이 일상사로 되고있는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범죄사건이다. 아무런 리유없이 사람을 무력대고 폭행하고 지어 살해하는 범죄행위는 남조선에

서 해마다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부산에서는 50대남성이 여자위생실에 들어가서는 60대녀성을 무력대고 폭행하여 갈비뼈와 코뼈를 꺾어놓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지난 6월말에는 TV를 보다가 살인충동을 느낀 20대의 한 녀성이 알지도 못하는 같은도

래 녀성의 집에 찾아가 그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태연하게 시체를 트렁크에 넣어 내다버린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어 7월에는 서울 신림동에서 30대의 남성이 걸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흥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였다.

인터네트에 《살인예고》 글이 수없이 오르고있으며 이러한 글을 올리는자들중에는 10대의 청소년들이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오늘 7시에 재송역주변에서 사람들 다 죽일겁니다. 경찰도 그냥 죽일겁니다. 저를 막을순 없을겁니다.》이 글은 얼마전 어느한 녀성이 인터네트에 올린 글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는 사회가 《폭력무법시대》로 전락되었다고 개

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남조선에서 그칠새없이 벌어지는 살인범죄의 근원은 약육강식, 황금만능, 인간중오의 법칙이 지배하는 썩고 병든 사회제도에 있다. 너를 딛고 올라서야 내가 살수 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인간혐오, 인간중오가 사회에 만연되어 각종 범죄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것이다. 본기자 김 혜 성